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끝나지 않은 ‘황우석 사태’... 진실의 중요성 알리고 싶었죠”

영화 ‘제보자’ 임순례 감독...10월 개봉

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민하며 연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11월 제작사로부터 이 영화를 제안받았다. 당시 한국사회는 거짓이 진실보다 앞서는 조짐이 보였고 지금은 그것이 극대화한 시점”이라며 “영화를 연출하며 진실이 한 사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춰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임순례 감독(사진)은 25일 서울 동대문의 한 극장에서 열린 영화 ‘제보자’의 제작보고회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과 극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보자’는 2005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게 한 출가세포 논문 조작 사건인 이른바 ‘황우석 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다.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한 이창환 박사의 연구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의 제보가 이뤄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박해일은 한 번 사건을 끝낸 끝까지 놓치지 않는 PD 윤민철 역을, 이경영은 대한민국 최고의 출가세포 연구자 이창환 박사 역을 맡았다. 유연석은 출가세포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제보하는 심민호 연구원 역을 연기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2001)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8) 등을 연출한 임 감독은 “진실과 진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우

Advertisement for MBC 'Mama'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여자끼리의 우정도 가슴 찡해요' and 'MBC '마마'서 주부 서지는 역 열연 문정희'.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 드라마가 ‘사랑과 전쟁’과 다를 게 없어 보일까 봐서요. 너무 전형적인 통속극으로 비칠까 봐 걱정했죠. 그래서 저희는 여차피 그럴 거라면 정말 리얼하게 그려보자 결심했죠. 전형성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얘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최대한 시청자들에게 우리 드라마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고 있어요.” 백 마디 말이 무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MBC TV 주말극 ‘마마’의 문정희(38·사진)가 그렇다. 사교육 1번지 강남 부촌에서 ‘사교육 빈곤층’으로 살아가는 허우대는 우아하기 그지없지만 사실은 ‘빈수레’인 주부 서지는 으르렁 문정희의 연기력이 그렇다는 것이다. ‘마마’를 ‘사랑과 전쟁’에 빗댄 것은 13년만 존재도 모르고 있다. 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아들, 불륜, 시한부, 고부갈등, 시기 등 통속극에서 흔히 보아온 이야기들이 고루 들어 있기 때문. 하지만 통속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현실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그리고 ‘마마’에서 그러한 ‘현실성’을 담보하는 캐릭터가 바로 서지이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아이 언맨’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드라마틱한 인생역정을 돌아보면서 그가 고등학교를 그만둔 사연, 마약을 접한 사연, ‘아이언맨’에 캐스팅된 사연 등에서 팬들이 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선보였다. 이에 방송 직후 이 프로그램의 게시판을 비롯해 인터넷에서는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서프티스라고 프로그램 이름을 바꿔라

“우리가 드라마에서는 남자들이 보기에 ‘저런 게 말이 돼?’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여자들이 보기에 너무나 당연한 게 많아요. 여자들 우정이라는 게 남자들이 보는 눈과 다른 점이 있죠. 승희와 지은도 출발은 돈과 욕과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것이지만 그 두 여자 사이의 화학작용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죠. 그 우정을 잘 그려내고 싶어요.” 지은과 승희의 ‘케미’는 그들을 연기하는 문정희와 송윤아에게도 넘어왔다고 한다. 문정희는 “윤아 언니와 처음 연기하는 데 정말 언니랑 케미가 너무 좋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같이 연기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재미있는 게 실제 성격은 제가 승희처럼 강하고 쿨한 반면, 윤아 언니가 지은이처럼 예고 많고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성격을 벤치 마킹하면서 연기하고 있어요. 윤아 언니가 극중에서는 까칠하게 나오지만 사실은 너무 순하고 친절하거든요.” 24부작인 ‘마마’는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서지이는 한승희의 실체를 알게 되는 큰 고비를 앞두고 있다. 문정희는 “앞으로 서지이에게 다칠 어머니마한 일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다. 그 엄청난 감정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able with 4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Rows list variou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Horoscope section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Knowing the fate that sees today's fortune). It lists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their corresponding birth years, along with brief predictions.

Advertisement for MBC '신비한 TV...' (Mysterious TV...) featuring a man's face and the text '신비한 TV...' and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편 '거짓 방송' 논란'.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